

들으라 부한 자들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이의 소유를 탐하는 문제 중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불의한 소유의 문제이다. 사실 눈에 보이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은 확실하기에 누구도 쉽게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런 도적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이 계명에서 자유로운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남의 것을 빼거나 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져야 할 기본정신을 배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부한 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본문이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부한 자들이 범한 잘못들은 무엇이었는가?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남의 소유를 도적질하는 문제는 실제로 소유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소유를 가지는 과정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소유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자신의 것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자이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벌어들일 때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명령들이 지금 당장 당신과 관계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당신이 평생을 살면서 심각하게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중요한 원리임을 명심하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 하는 문제에 대한 두 번째 묵상의 내용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도둑질은 하지 않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깊게 묵상함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취해야 할 태도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속에 있는 분에 대하여 본문은 무엇을 교훈하는가?

도둑질 하던 자가 이제 새롭게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성경은 당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임을 먼저 기억시킨다. 그렇다 당신은 새로운 존재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당신의 이웃은 더 이상 그냥 이웃이 아니라 지체이며 당신이 분을 품는 일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그 일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면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당신의 그릇된 행동들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에게 주신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 남을 돕고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당신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당신과 나를 향한 새로운 부르심은 이렇게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당신을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인 단계이자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청지기직'의 회복이다. 당신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모든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가? 오늘 주어진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청지기직'의 회복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되길 축복한다.

전도서 저자가 세상 가운데서 발견한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종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천국이 그저 먹고 놀고 쉬는 곳, 일하지 않아도 되는 곳 정도로 생각하며 그 곳을 소망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요 선물로 '일'을 설명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 결과들을 누릴 수 있음이 귀한 축복인 줄 아는 것. 그것이 탐욕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출발이요 마지막이다. 또한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맡겨 주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청지기'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무엇을 하던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분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다.

당신의 삶이 이런 '청지기'로서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복한다.